

# 충남지역 대학생의 식사유형 및 전통음식에 대한 선호도

## Meal Types and Preference on Korean Traditional Foods of University Students in Chungnam

공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박 미 자  
공주대학교 동물자원학과  
조교 김 석 은  
공주대학교 동물자원학과  
교수 김 계 응\*

Dept. of Food Nutrition, Kong-ju Natl. Univ.

Professor : Park, Mie-Ja

Dept. of Animal Resources Sci., Kong-ju Natl. Univ.

Assistant : Kim, Seok-Eun

Dept. of Animal Resources Sci., Kong-ju Natl. Univ.

Professor : Kim, Gye-Woong

###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preference for traditional food of university students through the analysis of their daily meal types.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a total of 197 students from December 2007 to February 2008 in Chungnam Province. The results are as follows; 148 of the respondents (73.0%) prefer Korean traditional meal as their favorite food. The significant differences are found in both gender groups and major groups ( $p < .05$ ). 178 of the respondents (90.4%) answered that the traditional foods are excellent and good. However, the foods were significantly ( $p < .05$ ) evaluated that major students consider them to be 'excellent' foods, while non-major students consider them to be 'good' foods. 136 of respondents (69.0%) answered that the traditional foods have beneficial influences on their health. In the survey on intake frequency of traditional meals, 137 of respondents (65.9%) have traditional foods more than twice a day. The ratio of traditional meal intake of male students is a significantly higher level ( $p < .05$ ) than that of female students. Their preference for traditional rice cake, fermented rice punch, and juice mixed with fruits is a very high level of the average of 4.19, 4.22 and 4.34, respectively. The preference for Kimchi, Bulgoki, boiled beef slices, sundae and jelly was a relatively high level of the average of 4.43, 4.65, 4.14, 4.30, and 4.05, respectively. Concludingly, the research shows the majority of students enjoy Korean traditional food and expect Korean food as favorite food to be developed and to be inherited.

Key Words : Meal Types, Korean Traditional Foods, Preference

### I. 서론

오늘날의 음식문화는 인류생활 중 가장 중요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소비패턴도 서구화되면서 다양성과 함께 빠른 속도로 변화해오고 있다(이일환, 1993; 최

미숙 등, 2002). 우리나라에서도 산업화 추세에 따라 편리성과 간편성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의 음식섭취 성향도 식문화의 새로운 양상으로 변화되고 있다(이나영·최미경, 2003). 최근 식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식자재가 풍요로워지고 건강에 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well-being 식생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어 음식이나 식품의 선택기준도 변화

\* Corresponding author: Gye Woong, Kim  
Tel: 041) 330-1245, Fax: 041) 330-1249  
E-mail: kimgoong@kongju.ac.kr

되어가고 있다(홍희옥·이정숙, 2006).

우리의 고유한 자연환경과 함께 민족의 역사성과 향토성을 가지고 전승 발전되어온 전통식품은 날로 우수성이 인정되어 많은 사람들이 제조법이나 영양적 가치에 대해서도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서 우리 식품의 인지도 수준과 정확한 선호도 평가가 필요하다(김주현, 1995; 홍금선 등, 1999).

대학생들의 한국 전통식품에 관한 지식과 평가에서 우리 전통식품을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다면 「더 섭취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통식품의 인지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경애 등, 1993).

지역 향토음식의 관심유무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8.4%가 「관심있다」로 응답하여 매우 높은 관심도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지역의 향토음식으로는 비빔밥과 콩나물국밥을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민계홍, 2003). 이와 같은 전통식품 중에서 한과는 건강에 좋은 이미지로 이해되고 있었으나, 맛과 위생상태를 더욱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고된 바도 있다(이계임·김민정, 2007). 전통음식의 계승은 세대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가족구성원으로서 조부모의 존재와 역할 또한 아동의 전통음식에 대한 인식 및 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강정희·이경애, 2008).

김향숙·윤경희(2004)의 한국 전통음식 이용실태에서 남녀 대학생들은 구이와 전류, 한과류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음식은 1주일에 한 번 이상씩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들은 한과류를 선호하기 때문에 구매할 의사가 있고(47%), 구매 후에도 만족한 것으로(46%) 조사되었다(유명남·유소이, 2004). 그리고 전통의식가공식품은 소비자의 구매만족뿐만 아니라 재구매 의사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복혜자, 2003).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별, 학년별 및 식품 전공별로 각각 구분하여 식사의 유형, 우리 전통음식의 선호도를 평가하여 전통식품으로서의 가치를 증진하고 계승발전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 II. 연구내용 및 방법

### 1. 조사대상 및 기간

충남지역에서 재학하고 있는 남·여 대학생 220명을 대상으로 조사자 3명이 전공강좌, 교양강좌 등의 시간을 주로 이용하여 수강생들에게 설문지를 배포 후 직접 기록하도록 한 후 수거하였으며, 학과를 방문한 학생들에게서도 설문 응답토록 하였다. 조사기간은 2007년 1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중 충실하게 응답한 197명의 설문지를 통계조사대상 자료로 이용하였고, 성별, 학년별 및 전공별 분포는 <표 1>과 같이 남자 84명과 여자 113명, 저학년 124명과 고학년 73명, 그리고 식품관련전공자 48명과 비전공자 149명 이었다.

### 2. 조사내용 및 방법

설문의 조사내용은 즐기는 식사유형, 우리 전통음식의 평가, 전통음식과 건강과의 관계, 전통음식의 섭취빈도, 전통음식 중 다과류와 반찬류의 선호도 등으로 남녀, 저학년과 고학년, 그리고 식품관련 전공과 비전공자들을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선호도 평가에서는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매우 나쁘다」 1점에서 「매우 좋다」 5점으로 각각 점수화하여 산술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3. 통계처리 및 분석

식사유형, 전통음식의 평가, 건강과의 관계, 섭취빈도 및 선호도에 관한 설문 통계는 SPSS 통계패키지(Ver. 12.0)를 이용하여 성별, 학년별 및 전공별  $\chi^2$ -test로 유의성을 검정하였으며, 선호도 평가에서는 8종의 다과류와 9종의 반찬류 전통식품을 각각 구분하여 두 평균치간의 차이는 t-test로 유의성을 검정하여 분석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성별, 학년별 및 전공별 분포

구분	성별		학년별		전공별		계
	남	여	저학년	고학년	전공	비전공	
N	84	113	124	73	48	149	197
%	42.6	57.4	62.9	37.1	24.4	75.6	100.0

&lt;표 2&gt; 성별, 학년별 및 전공별 대학생의 즐겨하는 식사유형

단위 : N (%)

구분	성별		학년별		전공별		전체
	남	여	저학년	고학년	전공	비전공	
한식	59 (70.2)	84 (75.0)	86 (69.9)	57 (78.1)	34 (70.8)	109 (73.6)	148 (73.0)
양식	10 (11.9)	21 (18.8)	24 (19.5)	7 (9.6)	8 (16.7)	23 (15.5)	31 (15.8)
일식	7 (8.3)	5 (4.5)	5 (4.1)	7 (9.6)	6 (12.5)	6 (4.1)	12 (6.1)
기타	8 (9.5)	2 (1.8)	8 (6.5)	2 (2.7)	0 (0.0)	10 (6.8)	10 (5.1)
계	84 (100.0)	112 (100.0)	123 (100.0)	73 (100.0)	48 (100.0)	148 (100.0)	196 (100.0)
$\chi^2$ -검정	$\chi^2$ -값: 8.378* (p: 0.039)		$\chi^2$ -값: 6.826 (p: 0.078)		$\chi^2$ -값: 7.535* (p: 0.050)		-

\*: p&lt;.05

### III. 결과 및 고찰

#### 1. 식사의 유형

##### (1) 식사유형

성별, 학년별 및 전공별 응답대학생들의 즐겨하는 식사유형은 <표 2>와 같다.

식사는 전체 응답자 중 「한식」을 가장 많이 즐겨하고 있으며(73.0%), 그 다음으로는 양식(15.8%), 일식(6.1%) 순으로 조사되었다.

성별 분석에서는 남·여 간에 통계적 유의성이 인정되었다(p<0.05). 한식은 남학생(70.2%)보다 여학생(75.0%)이, 양식은 역시 남학생(11.9%)보다 여학생(18.8%)이, 그리고 일식은 여학생(4.5%)보다 남학생(8.3%)이 각각 더 즐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한식은 저학년(69.9%)보다 고학년 학생(78.1%), 양식은 고학년(9.6%)보다 저학년(19.5%), 그리고 일식은 저학년(4.1%)보다 고학년(9.6%)이 더 즐겨 식사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공별간에는 유의한 차이(p<.05)를 보였는데, 한식의 경우는 전공학생(70.8%)보다 비전공학생(73.6%), 그리고 일식은 비전공(4.1%)보다 전공학생(12.5%)이 더 즐겨하였다.

##### (2) 아침식사유형

응답 대학생들의 성별, 학년별 및 전공별 아침식사의

유형은 <표 3>과 같다.

전체 응답자 중 「한식」이 가장 많았으며(62.4%), 그 밖에 혼식(8.1%)이나 빵식(2.5%)은 매우 적었으나, 결식(21.3%)하는 경우도 비교적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 학년별 및 전공별 간에는 모두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는데, 성별로는 남·여대학생의 즐겨하는 아침식사형태가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나, 결식의 경우는 남학생(17.9%)보다 여학생(23.9%)이 더 많은 경향을 보였다. 학년별로도 아침식사의 형태가 비슷하였으나 결식은 고학년(17.8%)보다 저학년(23.4%)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전공별로는 한식의 경우 비전공(61.1%)보다 전공(66.7%)이 더 즐겨하였으나 결식은 전공(18.8%)보다 비전공(22.1%)이 많은 경향으로 나타났다.

정복미 등(2003)은 아침식사 형태는 「한식(밥)」으로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86.7%), 그 다음으로는 밥, 죽, 빵 등의 복합식이 5.6%, 빵이 4.2% 순으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연령이 낮을수록, 또 학력이 높을수록 빵과 복합식으로 섭취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최미용 등(2003)은 아침출근자 남·여간 유의성은 없지만 남·여 모두 「한식」을 가장 좋아하는 것(85.8%)으로 조사 보고하였다.

#### 2. 전통음식의 평가

조사대상 대학생들의 성별, 학년별 및 전공별 전통음식에 대한 평가는 <표 4>와 같다.

응답대학생은 우리 전통음식을 「양호하다」수준으로 가장 많이 평가하였으며(52.3%), 그 다음으로는 우수하다(38.1%), 보통이다(8.1%) 순이었으며, 좋지 않다는 평가는

&lt;표 3&gt; 성별, 학년별 및 전공별 대학생의 즐겨하는 아침식사유형

단위 : N (%)

구분	성별		학년별		전공별		전체
	남	여	저학년	고학년	전공	비전공	
한식 (밥 또는 죽)	54 (64.3)	69 (61.1)	78 (62.9)	45 (61.6)	32 (66.7)	91 (61.1)	123 (62.4)
빵식	4 (4.8)	1 (0.9)	2 (1.6)	3 (4.1)	1 (2.1)	4 (2.7)	5 (2.5)
혼식 (한식+빵식)	4 (4.8)	12 (10.6)	8 (6.5)	8 (11.0)	4 (8.3)	12 (8.1)	16 (8.1)
기타	7 (8.3)	4 (3.5)	7 (5.6)	4 (5.5)	2 (4.2)	9 (6.0)	11 (5.6)
결식	15 (17.9)	27 (23.9)	29 (23.4)	13 (17.8)	9 (18.8)	33 (22.1)	42 (21.3)
계	84 (100.0)	113 (100.0)	124 (100.0)	73 (100.0)	48 (100.0)	149 (100.0)	197 (100.0)
$\chi^2$ -검정	$\chi^2$ -값: 7.775 (p: 0.100)		$\chi^2$ -값: 2.963 (p: 0.564)		$\chi^2$ -값: 0.662 (p: 0.956)		-

&lt;표 4&gt; 성별, 학년별 및 전공별 대학생의 전통음식에 대한 평가

단위 : N (%)

구분	성별		학년별		전공별		전체
	남	여	저학년	고학년	전공	비전공	
훌륭(우수)하다	25 (29.8)	50 (44.2)	44 (35.5)	31 (42.5)	27 (56.3)	48 (32.2)	75 (38.1)
양호하다	50 (59.5)	53 (46.9)	63 (50.8)	40 (54.8)	18 (37.5)	85 (57.0)	103 (52.3)
그저 그렇다 (보통이다)	6 (7.1)	10 (8.8)	15 (12.1)	1 (1.4)	3 (6.3)	13 (8.7)	16 (8.1)
좋지 않다	3 (3.6)	0 (0.0)	2 (1.6)	1 (1.4)	0 (0.0)	3 (2.0)	3 (1.5)
계	84 (100.0)	113 (100.0)	124 (100.0)	73 (100.0)	48 (100.0)	149 (100.0)	197 (100.0)
$\chi^2$ -검정	$\chi^2$ -값: 8.322* (p: 0.040)		$\chi^2$ -값: 7.256 (p: 0.064)		$\chi^2$ -값: 9.402* (p: 0.024)		-

\*: p&lt;.05

매우 낮았다(1.5%).

성별로는 남·여 대학생간에 통계적으로 유의성(p<.05) 있는 차이가 인정되었다. 우리 전통음식을 「우수하거나 양호하다」는 평가는 남학생의 경우 89.3%와 여학생 91.1%로 남녀 모두 우리 전통음식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는 좋은 결과라고 생각된다.

학년별로는 저학년과 고학년 학생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우리 전통음식을 「우수하거나 양호하다」고 남학생과 여학생이 각각 86.3%와 97.3%로 평가하여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이 다소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공별 평가에서는 전공자와 비전공자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5)를 보였다. 전공학생은 「우수하다」고

가장 많이 평가(56.3%)한 반면에 비전공 학생은 「양호하다」로 가장 많이 평가(57.0%)함으로써 전공자가 비전공자 보다 우리 전통음식을 훌륭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전통음식에 관한 주관적 평가에서 남·여 성별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지만 남·여 학생 모두 우리 전통식품의 영양과 맛 면에서 다른 나라 음식보다 우수하다고 응답한 결과와 대체적으로 유사하였다(이경애 등, 1993). 지역 향토음식은 성별로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 그리고 학년별로는 저학년보다는 고학년 대학생이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하여 보고한 바도 있다(민계홍, 2003)

## 3. 전통식품과 건강

전통식품과 건강과의 관계를 묻는 설문 결과는 <표 5>와 같다.

전체 응답 대학생 중 전통식품은 건강에 「매우 좋다」와 「약간 좋다」라고 각각 69.0%와 14.7%로 응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전통식품은 건강에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고 있었다.

이를 성별로 본 분석에서는 남·여 간에 통계적 유의차는 없으나 남학생과 여학생이 모두 건강에 「매우 좋거나 약간 좋다」고 각각 80.9%와 85.8%의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다.

학년별 분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차는 없지만 저학년보다 고학년 학생(78.1%)이 건강에 「매우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모르겠다」는 고학년생 보다 저학년생(13.7%)이 더 많은 경향을 보였다.

전공별로도 전공자와 비전공자간에 통계적 유의차가 없었으나,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경우 건강에 「매우 좋다」는 것으로 각각 81.3%와 65.1%가 응답하여 비전공자보다는 전공학생이 우리 전통식품은 건강에 좋다는 평가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들이 우리나라 고유 전통식품 중 전통장류는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아 건강에 좋기 때문에 선호하고(소비자시민모임, 2005), 전통한과는 건강에 좋은 간식용 전통식품으로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결과(이계임·김민정, 2007)와 대체적으로 유사하였다.

## 4. 전통식사의 섭취빈도

우리 전통식사에 대한 응답 대학생들의 하루 중 섭취하는 빈도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남·여 성별 섭취빈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p<.05$ )를 보였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1일 2회」 우리 전통식사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남학생(33.3%)보다는 여학생(48.7%)의 전통식사 빈도가 더 높았다. 그 다음은 「1일 3회」, 전통식사를 하는 경우가 남학생 29.8%와 여학생 25.7%로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하루에 한 번도 전통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학년별 분석에서는 저학년과 고학년생 간에 통계적 유의차가 인정되지 않았는데 「1일 2회」, 식사하는 경우가 저학년생과 고학년생이 각각 44.4%와 38.4%로 가장 많고, 그리고 「1일 3회」, 식사는 각각 23.4%와 34.2%로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생이 우리 전통식사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공별로도 전공자와 비전공자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이 「1일 2회」, 전통식사를 하는 경우는 전공자와 비전공자가 각각 50.0%와 39.6%로 가장 많았으며, 비전공자보다는 전공자가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1일 3회」, 식사는 저학년 23.4%와 고학년 34.2%로 저학년보다 고학년생이 우리 전통식사를 더 즐겨하는 경향이 있었다.

우리 전통음식의 섭취는 주식으로 밥류와 부식으로 장류(된장과 고추장)를 남녀 모두 가장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경애 등, 1993; 김주현, 1995).

그리고 대학생들은 가공하여 판매되는 한국 전통음식을 1주에 평균 1~2회 이상 이용하며, 이용빈도와 시기에 따라 남녀 대학생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김향숙·윤경희, 2004).

<표 5> 성별, 학년별 및 전공별 대학생의 전통식품과 건강과의 관계

단위 : N (%)

구분	성별		학년별		전공별		전체
	남	여	저학년	고학년	전공	비전공	
매우 좋다	52 (61.9)	84 (74.3)	79 (63.7)	57 (78.1)	39 (81.3)	97 (65.1)	136 (69.0)
약간 좋다	16 (19.0)	13 (11.5)	19 (15.3)	10 (13.7)	6 (12.5)	23 (15.4)	29 (14.7)
보통이다	4 (4.8)	6 (5.3)	9 (7.3)	1 (1.4)	2 (4.2)	8 (5.4)	10 (5.1)
모르겠다	12 (14.3)	10 (8.8)	17 (13.7)	5 (6.8)	1 (2.1)	21 (14.1)	22 (11.2)
계	84 (100.0)	113 (100.0)	124 (100.0)	73 (100.0)	48 (100.0)	149 (100.0)	197 (100.0)
$\chi^2$ -검정	$\chi^2$ -값: 4.245 (p: 0.236)		$\chi^2$ -값: 6.532 (p: 0.088)		$\chi^2$ -값: 6.377 (p: 0.095)		-

&lt;표 6&gt; 성별, 학년별 및 전공별 대학생의 1일 전통식사의 섭취빈도

단위 : N (%)

구분	성별		학년별		전공별		전체
	남	여	저학년	고학년	전공	비전공	
1일 3회	25 (29.8)	29 (25.7)	29 (23.4)	25 (34.2)	14 (29.2)	40 (26.8)	54 (27.4)
1일 2회	28 (33.3)	55 (48.7)	55 (44.4)	28 (38.4)	24 (50.0)	59 (39.6)	83 (42.1)
1일 1회	13 (15.5)	8 (7.1)	15 (12.1)	6 (8.2)	5 (10.4)	16 (10.7)	21 (10.7)
가끔 한다	14 (16.7)	21 (18.6)	21 (16.9)	14 (19.2)	5 (10.4)	30 (20.1)	35 (17.8)
거의 안한다	4 (4.8)	0 (0.0)	4 (3.2)	0 (0.0)	0 (0.0)	4 (2.7)	4 (2.0)
계	84 (100.0)	113 (100.0)	124 (100.0)	73 (100.0)	48 (100.0)	149 (100.0)	197 (100.0)
$\chi^2$ -검정	$\chi^2$ -값: 16.653* (p: 0.020)		$\chi^2$ -값: 5.502 (p: 0.240)		$\chi^2$ -값: 4.226 (p: 0.376)		-

\*: p&lt;.05

## 5. 전통음식에 대한 선호도

## (1) 전통 다과류

우리 전통식품 중 8종 다과류에 대하여 성별, 학년별 및 전공별로 5점 척도법을 이용하여 주관적으로 평가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우리 전통떡에 대한 선호도 평균점수는 4.19점으로 비교적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이를 남녀 성별로는 통계적 유의차가 인정되었는데(p<.05)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다소 높은 선호도평가를 하였다. 학년별로는 저학년생과 고학년생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전공별 분석에서는 비전공자보다는 전공학생이 유의하게

&lt;표 7&gt; 전통다과류의 성별, 학년별 및 전공별 대학생의 선호도 평가

구분	성별		학년별		전공별		전체평균
	남	여	저학년	고학년	전공	비전공	
떡	4.02±0.98	4.32±0.75	4.23±0.84	4.14±0.92	4.44±0.71	4.11±0.90	4.19±0.86
t-검정	t=-2.394 (p: 0.018)		t= 0.695 (p: 0.488)		t= 2.277 (p: 0.024)		
약과	3.90±0.91	3.76±0.90	3.77±0.88	3.90±0.11	4.06±0.91	3.74±0.90	3.82±0.91
t-검정	t= 1.113 (p: 0.267)		t=-0.982 (p: 0.327)		t= 2.136 (p: 0.034)		
수정과	3.81±1.04	3.23±1.07	3.30±1.07	3.78±1.07	3.52±1.09	3.47±1.10	3.48±4.09
t-검정	t= 3.783 (p: 0.000)		t=-3.035 (p: 0.003)		t= 0.300 (p: 0.764)		
식혜	4.30±0.73	4.28±0.78	4.23±0.85	4.21±0.88	4.38±0.84	4.17±0.86	4.22±0.86
t-검정	t= 1.048 (p: 0.296)		t= 0.224 (p: 0.823)		t= 1.412 (p: 0.159)		
화채	4.43±0.73	4.28±0.78	4.37±0.72	4.30±0.83	4.43±0.74	4.32±0.77	4.34±0.76
t-검정	t= 1.362 (p: 0.175)		t= 0.599 (p: 0.550)		t= 0.848 (p: 0.397)		
정과	3.30±1.04	2.95±1.21	3.03±1.10	3.21±1.24	3.31±1.22	3.03±1.13	3.10±1.15
t-검정	t= 2.130 (p: 0.034)		t=-1.016 (p: 0.311)		t= 1.496 (p: 0.136)		
다식	3.38±1.11	3.23±1.08	3.25±1.03	3.37±1.20	3.44±1.24	3.25±1.04	3.30±1.09
t-검정	t= 0.943 (p: 0.347)		t=-0.729 (p: 0.467)		t= 1.033 (p: 0.303)		
차	3.85±0.90	3.93±0.91	3.81±0.89	4.03±0.93	4.15±0.83	3.81±0.92	3.89±0.91
t-검정	t=-0.643 (p: 0.521)		t=-1.600 (p: 0.111)		t= 2.243 (p: 0.026)		

\* 평가 평균치는 「매우 나쁘다」1점에서 「매우 우수하다」5점까지 점수화한 산술평균과 표준편차임.

( $p < .05$ ) 다소 높은 평가를 하고 있었다.

전통약과는 전체 응답자 평균은 3.82점으로 보통이상으로 선호도를 평가하고 있었다. 성별분석에서는 남녀 학생간과 학년별 간에는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전공별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차가 인정되었는데( $p < .05$ ) 비전공자보다는 식품전공학생이 높은 선호도로 평가하였다.

수정과는 전체평균이 3.48점으로 보통수준으로 선호하고 있었다. 이를 성별 선호도에서 고도로 유의성있게( $p < .001$ )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다소 높게 평가하였다. 학년별 분석에서도 학년간에 통계적 유의차가 있었는데( $p < .01$ )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생이 더 높게 평가하였다. 전공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이 전공자와 비전공 학생 모두 서로 비슷한 선호도를 보였다.

식혜는 전체평균이 4.22점으로 비교적 우수한 선호도를 보였다. 성별 분석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저학년과 고학년, 전공별 모두 유의차 없이 서로 비슷하게 비교적 우수한 선호도를 보였다.

화채의 경우는 전체평균이 4.34점으로 다소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성별로는 남녀 학생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학년별 및 전공별 분석에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평균치 모두 우수한 선호도 평가를 하고 있었다.

전통정과는 전체평균이 3.10점으로 중등수준으로 선호도를 평가하였다. 성별로는 통계적 유의차가 인정되었는데( $p < .05$ ),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정과를 더 선호하였다. 학년별로는 저학년과 고학년간에 유의차가 인정되지 않았는데,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이 더 많이 선호하는 경향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전공별로는 통계적 유의차가 없었으나 식품 비전공자보다 전공학생이 우리 정과를 다소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식은 전체평균이 3.30점으로 보통이상으로 선호하고 있었다. 이를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없이 남·여학생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학년별로는 저학년과 고학년생간에 유의한 차이 없이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생이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고, 전공별로도 비전공자보다는 전공학생이 선호하는 경향이였다.

전통차의 경우는 전체평균이 3.89점으로 다소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여 학생간에 유의차 없이 서로 비슷한 선호도 점수이었으나, 학년별 분석에서는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생이 우리차를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전공별로는 유의차가 있었는데( $p < .05$ ), 비전공자보다는 전공학생이 선호하였다.

김향숙·윤경희(2004)의 전통음식류 선호도조사에서는

한과류와 음청류의 경우 남녀 대학생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성( $p < .01$ )이 인정되었는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한과류를 더 좋아했으며(19.8%), 음청류는 여학생(10.0%)보다 남학생(17.3%)이 더 즐겨하는 것으로 조사 보고하였다. 양인선·황춘선(1990)은 전통떡류, 차류, 김치류 등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인지도와 기호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최미숙 등(2002)은 5·6학년 아동들은 떡(15.6%)보다는 케이크(28.1%)를 더 좋아한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젊을수록 우리 전통떡보다는 서양 케이크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전통 반찬류

우리 전통식품 중 9종 반찬류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평가한 선호도 결과는 <표 8>과 같다.

우리 발효젓갈은 전체평균이 3.62점으로 보통이상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성별분석에서는 남녀 학생간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으나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년별로도 저학년과 고학년생간에 유의차가 있었는데( $p < .05$ ),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생이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공별로도 유의한 차이있게( $p < .05$ ) 비전공자보다는 전공학생이 더욱 젓갈을 높이 평가하였다.

장아찌는 전체평균 3.66점으로 보통이상의 선호도로 평가하였다. 성별분석과 학년별 분석에서는 모두 서로 간에 통계적 유의차 없이 서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나, 전공별로는 유의차가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비전공자보다 전공학생이 더 높게 선호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우리 김치의 경우 응답생의 전체평균은 4.43점으로 우수한 선호도평가를 하였다. 성별, 학년별 및 전공별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이 서로 비슷하게 높은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이는 장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대학생들도 우리 전통김치의 우수성을 인정하여 식습관에 익숙해진 결과에 기인된 것으로 생각된다.

신선로는 전체평균이 3.49점으로 보통이상의 기호도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를 성별, 학년별 및 전공별 분석에서는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이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불고기의 경우는 조사대학생 평균이 4.65점으로 대단히 우수한 기호도를 보여주었다. 성별로서는 남·여 학생간에 유의한 차이없이 불고기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년별 및 전공별로도 모두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이 서로 비슷한 선호도를 보였다. 이와 같이 불고기의 기호도가 높은 것은 여전히 우리 전통 육류음식 중 매우 즐겨먹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lt;표 8&gt; 전통반찬류의 성별, 학년별 및 전공별 선호도 평가

구분	성별		학년별		전공별		전체평균
	남	여	저학년	고학년	전공	비전공	
젓갈	3.77±0.97	3.51±0.98	3.52±0.97	3.81±0.99	3.88±0.96	3.54±0.98	3.62±0.98
t-검정	t= 1.847 (p: 0.066)		t=-2.026 (p: 0.044)		t= 2.043 (p: 0.042)		
장아찌	3.65±1.02	3.67±0.91	3.59±0.98	3.78±0.92	3.88±0.89	3.59±0.98	3.66±0.96
t-검정	t=-0.107 (p: 0.915)		t=-1.323 (p: 0.187)		t= 1.768 (p: 0.079)		
김치	4.39±0.75	4.45±0.68	4.40±0.73	4.48±0.67	4.54±0.71	4.39±0.70	4.43±0.71
t-검정	t=-0.572 (p: 0.568)		t=-0.807 (p: 0.421)		t= 1.300 (p: 0.195)		
신선로	3.57±1.26	3.43±1.13	3.41±1.21	3.63±1.15	3.46±1.24	3.50±1.18	3.49±1.19
t-검정	t= 0.804 (p: 0.423)		t=-1.249 (p: 0.213)		t=-0.228 (p: 0.820)		
불고기	4.60±0.75	4.69±0.48	4.63±0.63	4.68±0.57	4.71±0.62	4.63±0.61	4.65±0.61
t-검정	t=-1.083 (p: 0.280)		t=-0.621 (p: 0.536)		t= 0.765 (p: 0.445)		
편육	4.31±0.99	4.01±1.06	4.01±1.13	4.36±0.84	4.31±0.99	4.08±1.06	4.14±1.04
t-검정	t= 2.016 (p: 0.045)		t=-2.286 (p: 0.023)		t= 1.343 (p: 0.181)		
순대	4.31±0.82	4.30±0.91	4.23±0.93	4.44±0.75	4.48±0.77	4.25±0.89	4.30±0.87
t-검정	t= 0.069 (p: 0.945)		t=-1.667 (p: 0.097)		t= 1.609 (p: 0.109)		
묵	4.02±0.93	4.06±0.88	4.03±0.90	4.07±0.90	4.25±0.81	3.98±0.92	4.05±0.90
t-검정	t=-0.294 (p: 0.769)		t=-0.272 (p: 0.786)		t= 1.820 (p: 0.070)		
구절판	3.54±1.25	4.12±0.92	3.75±1.15	4.07±1.01	4.10±1.15	3.79±1.09	3.87±1.11
t-검정	t=-3.749 (p: 0.000)		t=-1.963 (p: 0.051)		t= 1.706 (p: 0.090)		

\* 평가 평균치는 「매우 나쁘다」 1점에서 「매우 우수하다」 5점까지 점수화된 산술평균과 표준편차임.

편육은 전체평균 4.14점으로 비교적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이를 성별로는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였는데( $p<0.05$ ),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편육을 더 높게 선호하였다. 학년별로도 유의차 있게( $p<0.05$ ) 저학년보다 고학년생이 선호하였다. 그러나 비전공자보다는 전공학생이 유의성 없이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순대는 전체평균 4.30점으로 비교적 우수한 선호도 평가를 하였다. 성별, 학년별 및 전공별 분석에서는 모두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저학년보다 고학년생, 그리고 비전공자보다는 전공학생이 순대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우리 묵은 전체평균 4.05점으로 다소 높은 선호도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를 성별, 학년별 및 전공별로 모두 각각 통계적 유의차 없이 서로 비슷하게 높은 선호도이었다.

끝으로, 구절판은 전체평균 3.89점으로 보통이상 수준으로 선호하였다. 성별분석에서는 남·여 학생간에 고도로 유의성 있게( $p<0.001$ )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이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년별 및 전공별로는 각각 유의차는 없지만 저학년보다 고학년생, 그리고 비전공자보다는 전공학생이 각각 구절판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김주현(1995)은 전통음식의 선호도 조사에서 발효 젓갈

류는 소득별로 저소득층은 3.9점에서 고소득층 3.0점으로 소득층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으나 가족형태군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으며, 김치류는 소득층간 및 가족형태군간에 각각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김치류(포기, 총각, 열무)는 세대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지만 평균 선호도는 높게 평가하였으며, 젓갈류 중 새우젓, 창난젓, 오징어젓은 각각 0.1% 수준, 그리고 어리굴젓은 1%수준에서 세대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홍금선 등, 1999).

젓갈류는 연령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p<0.01$ ) 선호도가 높으며, 김치류와 순대의 경우도 유의성은 없지만 연령이 높은 층일수록 기호도가 높은 경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양인선·황춘선, 1990). 그리고 미래의 전통음식은 앞으로의 소비자 그룹인 청소년들의 인지와 기호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홍금선 등, 2000).

####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197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별, 학년별 및 전공별로 구분하여 우리 전통음식의 식습관을 조사하



고 선호도를 평가하여 전통식품으로서의 가치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계승·발전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얻고자 실시하였다. 그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의 식사유형은 「한식」을 가장 즐겨하는 식사(73.0%)로 조사되었다. 성별 및 전공별로는 각각 유의성( $p<.05$ )이 인정되었는데 한식의 경우 남학생(70.2%)보다 여학생(75.0%), 그리고 전공생(70.8%)보다는 비전공학생(73.6%)이 더 즐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학년별 간에는 유의한 차이는 없이 저학년생(69.9%)보다 고학년생(78.1%)이 한식을 더 즐겨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전통음식의 주관적 평가에서 전체 응답자 중 「우수하거나 양호하다」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90.4%).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p<.05$ )가 있었는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우리 전통음식을 우수한 식품으로 더 높게 평가하였다. 학년별로는 통계적 유의차가 없었으나, 전공별로는 유의한 차이( $p<.05$ )가 있었는데, 전공학생은 「우수하다」(56.3%)로 가장 많이 응답한 반면에 비전공학생은 가장 많이 「양호하다」(57.0%)고 평가하였다.

셋째, 전통식품과 건강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자 중 건강에 「매우 좋다」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69.0%). 이를 성별, 학년별 및 전공별 학생간에서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차는 없지만, 남학생보다는 여학생, 저학년생보다는 고학년생, 그리고 비전공자보다는 전공학생이 더 높게 전통식품은 「건강에 매우 좋다」고 응답하는 경향을 보였다.

넷째, 전통식사의 섭취빈도에서 전체 응답자 중 우리 전통식사는 「1일 2회」이상 섭취하는 것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나(69.5%), 「가끔하거나 안한다」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19.8%). 성별분석에서는 매우 높은 「1일 3회」섭취는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p<.05$ ). 그러나 학년별 및 전공별 학생간에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성있는 차이는 없었다.

다섯째, 전통다과류의 선호도평가에서 우리 전통떡, 식혜 및 화채의 선호도 전체 평균은 각각 4.19점, 4.22점 및 4.34점으로 매우 높게 평가하였으나, 약과, 수정과, 정과, 다식, 차 등은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성별분석에서는 떡은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유의하게( $p<.05$ ) 선호하였으나, 수정과는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고도로 유의하게( $p<.001$ ) 선호하였으며, 정과도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유의하게( $p<.05$ ) 선호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학년별로는 수정과의 경우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생이 유의하게( $p<.05$ )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별로는 우리떡, 약과 및 전통차는 비전공자보다는 전공학생이 유의하게( $p<.05$ ) 선호하였다.

끝으로, 전통반찬류의 선호도평가에서 전체평균은 전통

김치 4.43점, 불고기 4.65점, 편육 4.14점, 순대 4.30점, 목 4.05점으로 비교적 높은 선호도로 평가를 하였으나, 우리 것갈, 장아찌, 신선로와 구절판은 「보통 이상」수준으로 평가하였다. 성별분석에서는 편육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유의하게( $p<.05$ ) 더 선호하며, 구절판은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고도로 유의하게( $p<.001$ )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것갈은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생이 유의하게( $p<.05$ ) 더 선호하였으며, 편육도 저학년보다 고학년생이 유의하게( $p<.05$ ) 더 선호함을 보였다. 또한 전공별로는 것갈의 경우 비전공보다 전공학생이 유의하게( $p<.05$ ) 더 선호하였다. 따라서 많은 대학생들이 장년층이나 노년층에서 즐겨하는 우리 전통음식을 여전히 선호할 뿐만 아니라 우수하게 평가하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의 전통 식품 문화는 계승되고 더욱 발전될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 식사유형, 전통식품, 선호도

## 참 고 문 헌

- 강정희, 이경애(2008). 초등학교의 전통음식에 대한 인식, 기호도 및 섭취실태 -김치류, 떡류, 음료류를 중심으로-.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23(5), 543-555.
- 김주현(1995). 여고생의 한국 전통음식에 관한 기호도 및 섭취빈도에 관한 연구. 한국식품영양학회지, 8(4), 293-300.
- 김향숙, 윤경희(2004). 충북지역 대학생의 가공판매되는 한국전통음식에 관한 이용실태. 한국생활과학회지, 13(1), 85-90.
- 민계홍(2003). 향토음식에 대한 전북지역 대학생들의 인지도 및 기호도에 관한 연구. 한국조리학회지, 9(2), 127-147.
- 복혜자(2003). 전통외식가공식품의 구매평가 및 재구매 의사와의 관계. 한국조리학회지, 9(3), 152-162.
- (사)소비자시민모임(2005). 순창전통장류에 관한 소비자 의식조사.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연구회.
- 양인선, 황춘선(1990). 제주도 향토음식에 관한 대학생의 인지도 및 기호도 조사 연구. 한국식문화학회지, 5(3), 317-330.
- 유명남, 유소이(2004). 전통한과류에 대한 소비자 선호 및 구매후 만족에 관한 연구. 소비문화연구, 7(1).
- 이계임, 김민정(2007). 주요 전통식품에 대한 소비자평가 분석. 농업경영·정책연구, 34(2), 320-343.
- 이경애, 장영애, 김우경(1993). 남녀대학생들의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지식 및 평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4), 183-191.
- 이나영, 최미경(2003). 충남지역 대학생의 섭취실태를 통한

- 전통발효식품의 영양적 평가. 대한영양사협회학술지, 9(2), 97-105.
- 이일환(1993). 한국인의 식생활 양상의 변화가 건강 및 질병상태에 미친 영향. 한국식문화학회지, 8(4), 359-360.
- 정복미, 안창범, 승정자(2003). 전남 여주시 주부들의 김치 제조실태, 부식가짓수 및 아침식사 형태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4), 35-43.
- 최미숙, 정은희, 현대선(2002). 충북지역 아동들의 전통음식에 대한 의식과 기호도-명절음식, 떡, 전통음료-,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7(4), 399-410.
- 최미용, 박동연, 이승교(2003). 아침식사 여부에 따른 쌀음식 섭취형태 및 선택,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8(4), 547-545.
- 홍금선, 백수진, 김향숙(1999). 시판되는 한국전통다과류의 이용현황 및 선호도의 세대간 차이. 한국생활과학회지, 8(2), 363-372.
- 홍금선, 백수진, 김향숙(2000). 시판되는 한국전통다과류의 인지도 및 기호도의 세대간 차이. 한국생활과학회지, 9(1), 591-597.
- 홍희옥, 이정숙(2006). 서울지역 남녀 대학생의 한식 선호도 조사(I). 한국영양학회지, 39(7), 699-706.

(2008. 12. 3 접수; 2009. 3. 3 채택)